

2021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 돋보기

수필분야 최우수상

대물림되는 차별

우리 새언니는 베트남 사람이다. 오빠와는 베트남 현지에서 만난 사이로, 당시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지사에 파견 나가 있던 오빠와 2년간의 사내연애 끝에 한국으로 와서 결혼식을 올렸다. 새언니는 베트남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인들이 선망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다 오빠를 만나 연애결혼을 한 사이지만, 국적과 피부색 때문인지 주변 사람들은 새언니를 그저 '가난하고 못 배운 베트남 사람'으로만 여겼다. 결혼 초기 한국어를 잘 못했을 때는 나와 영어로 대화를 나눴고, 이후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해 부모님과 아무 무리 없이 의사소통을 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주위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친척 어른들은 오빠가 뭐가 모자라서 베트남 여자를 신부로 들였냐면서 혀를 찼고, 사촌들은 2세의 피부색을 걱정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게 새언니가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이었고, 많은 이주 여

성들이 그랬듯 새언니도 처음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연애결혼으로 한국에 왔지만 단순히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항상 '가난해서 돈 받고 결혼했다'는 따가운 시선과 편견이 따라다녔다. 한 번은 새언니가 나를 붙잡고 주변의 편견 때문에 속상하다며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다. 제법 관창은 국산 세단을 타는 새언니가 식당에 차를 몰고 가 대리주차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차에서 내리는 자신을 한참 훑어보는 직원의 노골적인 표정이 상당히 불쾌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새언니가 진짜로 속상해하는 건 따로 있었다. 자신이 겪는 사회적인 차별이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되어 이어지고 있어서다. 미취학 아동인 작은 조카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



었다고 하는데,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 조카는 벌써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새언니가 한국어를 잘하는 덕분에 조카 역시 한국어를 잘하는데도 반 아이들이 이유 없이 놀리고, 베트남 사람이 왜 한국 이름을 쓰느냐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언젠가는 “재네 엄마, 베트남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베트남은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래~”라는 말에 큰 조카가 상처를 받아 울고 들어온 일이 있었다. “엄마는 다른 엄마들하고 다른 거야? 가난한 베트남에서 왔어?”라고 묻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해맑던 아이였는데, 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낮빛이 어두워져 새언니는 매번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야 어차피 언어도, 살아온 배경도, 피부색도 다르니까 이방인으로 볼 수 있지만 아이들까지 왜 그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첫 학부모 면담을 앞두고 큰 조카가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점을 감안해, 담임교사가 엄마 말고 아빠를 모시고 오라고 한 일이 있었다. 엄마가 이주 여성이다 보니 의사소통이 안 될 거라는 지레짐작에서였다. 전후 상황을 알게 된 새언니는 당당히 학부모 면담에 참여했지만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시선을 느꼈다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한번은 새언니와 조카를 만나러 내가 집으로 찾아간 일이 있었다. 밖에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앞에서 걷는 예쁘장한 여자아이를 보고 조카가 반색을 하며 좋아했다. 물어보니 같은 반 친구였다. 조카는 기쁜 마음에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데, 그 여자아이는 못 본 체 하며 고개를 핵 돌려버리고 말았다.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저 아이랑 아는 사이니? 왜 모른 척을 해?”라고 물으니, 여자아이가 “응. 우리 반 앤데, 베트남에서 온 애야. 시커멓고 지저분하게 생겨서 반 애들이 다 싫어해. 나도 재 싫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나누는 대화라 새언니와 내 귀에도 생생하게 다 들렸다.

새언니와 나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조카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같은 반 친구들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뒤틀린 시선으로 조롱당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엄마의 국적으로 몇몇 아이들이 놀리는 정

도였던 건 잘 알았다. 시무룩한 표정의 조카를 보면서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런저런 편견들을 겪다 보니, 새언니는 아이가 한국어가 아닌 자신의 모국어를 배웠다가는 한국 사회에 자연히 스미거나 한국어를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국제결혼을 선택했지만, 가끔씩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한다. 나는 ‘혹시 아이들이 엄마인 나를 부끄러워하진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는 새언니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지난해 한 지역 시장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가리켜 튀기-잡종-강세 등으로 표현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 시장은 사회와 함께 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의식을 재확인할 수 있던 사례였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낙인찍고 관리할 대상으로 칭한 것에 대해 씁쓸한 감정이 들면서, 오빠네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웠다.

국제결혼 이주자와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들이지만, 외모와 출신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갖가지 차별과 편견에 신음하며 지낸다.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일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은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빛나는 미래 주역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은 곧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새언니와 조카들은 물론이고,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이 사회의 영원한 이방인이 아닌 미래의 주역으로서 차별 없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